

예수에 대한 칭호 ἀρχηγός의 해석과 번역

김영인*

1. 들어가는 말

어떤 한 인물에게 부여된 호칭, 칭호 또는 존칭은 그 인물에 대한 전부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한 단면은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예수에 관한 공관복음 전승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τίς ἄρα οὗτός ἐστιν;)¹⁾라는 질문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던 무리조차 예수를 때론 ‘세례요한’이나 ‘엘리아’로 때론 ‘선지자’로 불렀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²⁾ 더군다나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도 제자들의 인식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³⁾ 이런 이유로 초기 기독교는 예수께 다양한 칭호를 부여했고 예수께 부여된 호칭을 탐구하는 것은 신약성경 기독교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칭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약성경 기독교론의 초석을 놓은 부세트(W. Bousset)는 비록 종교사학과(religionsgeschichtliche Schule)의 확신에 따른 연구이기는 하지만 초기 기독교의 신앙고백 전승 궤도 안에 자리 잡은 주(κύριος)와 그리스도(χριστός)라는 칭호의 기원에 대한 괄목할 만한

* KiHo Wuppertal/Bethe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yikim@stu.ac.kr.

1) 참조, 막 4:41; 마 8:27; 눅 8:25.

2) 참조, 막 8:28; 마 16:14; 눅 9:19.

3) 참조, 눅 24:19.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우리말 성경 인용은 『개역개정』을 사용한다.

연구를 수행했다.⁴⁾ 같은 맥락에서 예수에 관한 존칭을 연구한 쿨만(O. Cullmann)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초기 기독교의 신앙고백에 있음을 주지하고 그 신앙고백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다양한 존칭을 예언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 메시아, 인자, 주(κύριος), 구원자(σωτήρ),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로 확장하여 탐구한다.⁵⁾ 이처럼 예수에 관한 칭호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장 직관적으로 말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에 관한 칭호를 연구한 한(F. Hahn)은 예수의 칭호를 인자, 주(κύριος),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한정하여 위의 연구와 대화를 한다.⁶⁾

그렇다면 신약성경에는 왜 이렇게 다양한 예수에 관한 호칭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먼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상의 예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 동시에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어떤 단 하나의 칭호로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 부여된 어떤 한 칭호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 예수에 대한 단 하나의 칭호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본 소고는 예수에 대한 칭호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ἀρχηγός를 다루려고 한다.

2. ἀρχηγός 번역의 문제

초기 기독교의 케리그마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존칭 ἀρχηγός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이 용어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ἀρχηγός는 “ἀρχ(η) + ηγός”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앞부분 ‘ἀρχ(η)’는 ἀρχω 동사의 명사형으로 점유된 장소 또는 시간적, 질적, 양적 의미에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을 뜻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다, 통치하다, 지시하다, 이끌다”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로부터 파생된 같은 계열의 명사 ἀρχός는 “조상, 설립자, 창시자” 등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말한다.⁷⁾ 두 번째 부분인

4) W. Bousset, *Kyrios Christos*, J. E. Steely, trans.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3); 또한 게르트 타이센, 아네트 메르츠, 『역사적 예수』, 손성현 역 (서울: 다산글방, 2001), 730-732; 래리 허타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박규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57-77; 이상일, “신약기독론의 이중언어적 기원”, 『신약연구』 15 (2018), 206-233, 특히 208-214.

5) O. Cullmann, *Die Christologie des Neuen Testaments*, 5. Auf. (Tübingen: J. C. B. Mohr, 1957).

6) F. Hahn, *Christologische Hoheitstitel – Ihre Geschichte im frühen Christentum*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64).

7) G. Delling, “ἀρχηγός”, G. Kittel, G. Friedrich, hrsg., *ThWNT I* (Stuttgart; Berlin; Köln: Kohlhammer, 1990), 485-488; H. Frisk, *Griechisches etymologisches Wörterbuch*, vol. I

‘ηγός’는 동사 ἄγω나 ἡγέομαι로부터 파생된 명사형으로 이들은 주로 ‘인도하다, 안내한다. 이끌다’ 등을 뜻한다.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는 ‘지도자, 리더, 상관’ 등을 의미한다.⁸⁾ 그런데 이 ἀρχηγός는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만 각각 두 번씩 나오는 예수에 대한 칭호이다.⁹⁾

“생명의 주(ἀρχηγόν)를 죽였도다”(행 3:15상반)

“임금(ἀρχηγόν)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행 5:31하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ἀρχηγόν)를 …”(히 2:10하반)

“믿음의 주(ἀρχηγόν)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히 12:2상반)

예수의 존칭 ἀρχηγός에 대한 위의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사도행전 3:15상반과 히브리서 12:2상반은 ἀρχηγός를 κύριος의 대칭 번역어인 ‘주’(主)로 번역하여 ἀρχηγός의 원의(原意)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원문(原文)이 κύριος일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사도행전 5:31하반과 히브리서 2:10하반은 다소 낮설지만 각각 ‘임금’과 ‘창시자’(創始者)로 번역하여 ἀρχηγός를 예수의 다른 칭호들과 차별화하고 그 고유의 신학적 의미를 살린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공동』은 같은 구절에 나온 ἀρχηγός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행 3:15상반), ‘지도자’(행 5:31하반), ‘창시자’(創始者)(히 2:10하반), ‘근원’(히 12:2상반)으로 번역한다. 『개역개정』과 비교할 때 단지 히브리서 2:10하반의 ‘창시자’와 일치하며 ἀρχηγός의 번역이 쉽지 않음을 표출한다.¹⁰⁾

사실 ἀρχηγός의 번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말 성경 번역의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영어 성경이 『개역개정』처럼 ἀρχηγός의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Winter, 1960), I. 159.

8) H. Frisk, *Griechisches etymologisches Wörterbuch*, 621-622.

9) 클레멘스 1서와 2서에서도 이 존칭이 예수께 적용되어 나타난다. 다음을 참고하라. 1C1m. 14:1; 51:1; 63:1 또한 2C1m. 20:5.

10)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역인 <화합본>(和合本)의 경우 ἀρχηγός가 나타나는 구절을 사도행전에서는 ‘主’, ‘君王’로, 히브리서에서는 ‘元帥’, ‘創始’로 번역하고, <현대중문역본>(現代中文譯本)은 각각 ‘主’, ‘元首’와 ‘先鋒’, ‘創始者’로 번역한다. 중국어 성경의 경우 ἀρχηγός가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서처럼 κύριος를 연상하는 ‘주’(主)로 번역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개역개정』에서 ‘임금’으로 번역한 말의 대응어인 ‘君王’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 번역이 중국의 성경 번역에 영향을 받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ἀρχηγός의 의미를 살린 듯 보이는 ‘선봉’(先鋒), ‘창시자’(創始者) 등도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상용성경인 <구어역>(口語譯)은 위의 구절을 차례로 ‘君’, ‘導き手’ 그리고 다시 ‘君’과 ‘導き手’로, <신공동역>(新共同譯)은 ‘導き手’, ‘導き手’, ‘創始者’, ‘創始者’로 번역한다. 일본어 성경의 경우 ἀρχηγός의 번역으로 ‘지도자’(導き手)와 ‘창시자’(創始者)를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학적 특성이나 의도를 배제한 채 κύριος를 연상시키는 ‘Lord’로 번역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KJV와 NAS는 사도행전 3:15상반의 경우 ἀρχηγός를 ‘prince’로, NIV와 RSV는 ‘author’로 번역하고, 사도행전 5:31하반의 경우 KJV, NAS, NIV는 ‘prince’로, NRS는 ‘leader’로 각각 번역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2:10하반의 경우 KJV는, ‘captain’으로, NAS와 NIV는 ‘author’로, NRSV는 ‘pioneer’로 번역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2:2상반의 경우 KJV, NAS, NIV는 ‘author’로, NRS는 ‘pioneer’로 번역한다.¹¹⁾

이처럼 ἀρχηγός에 대한 번역은 쉽게 일치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신학적, 해석적 입장에 따라 지금껏 주의를 끌지 못한 낯선 칭호인 ‘임금/왕자’(prince), ‘창시자/근원자’(author), ‘지도자’(leader), ‘대장’(captain), ‘선구자’(pioneer) 등과 같은 단어의 장(field)을 펼친다. 이렇게 볼 때 신약성경 텍스트에 ἀρχηγός가 어떻게 예수에 대한 칭호로 도입되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ἀρχηγός의 번역은 일치를 보지 못하고 요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ἀρχηγός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유래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3. 구약성경과 유대교 문헌에서의 용례

종교사적으로 볼 때 초기 기독교는 유대적 사고와 강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특별한 영향을 받았다.¹²⁾ 더구나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부여한 고유하고 독특한 호칭과 서술

11) 독일어 성경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터번역>(LUT), <공동번역>(EIN), 그리고 문자적 번역에 충실한 <엘버펠더>(ELB)를 살펴보면, 먼저 행 3:15상반의 경우 LUT, ELB는 ‘Fürsten’으로, EIN은 ‘Urheber’로 번역하고, 행 5:31하반의 경우 LUT는 ‘Fürsten’으로, ELB는 ‘Führer’로, 그리고 EIN은 ‘Herrscher’로 번역한다. 히 2:10하반의 경우 LUT는 ‘Anfänger’, ELB와 EIN은 ‘Urheber’로 번역하고, 12:2상반의 경우 LUT와 ELB는 ‘Anfänger’로, EIN은 ‘Urheber’로 번역한다. 독일어 성경의 경우 ἀρχηγός의 번역이 ‘군주’, ‘군왕’을 의미하는 ‘Fürsten/Herrscher’를 제외하면 ‘지도자’(Führer)와 ‘창시자/근원자’(Urheber/Anfänger)로 대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어 성경의 경우 대표적 성경인 <루이스공역>(LSG)은 위의 구절을 사도행전에서는 두 경우 모두 ‘Prince’로 번역하고, 히브리서에서는 ‘Prince’와 ‘chef’로 달리 번역한다. <공동번역>인 TOB의 경우 사도행전에서 LSG와 마찬가지로 둘 다 ‘Prince’로 번역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둘 다 ‘initiateur’로 번역한다. 프랑스어 성경 번역의 경우 ἀρχηγός의 번역으로 ‘왕자’(Prince)와 ‘창시자/근원자’(initiateur)로 기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 게르트 타이센, 아네트 메르츠, 『역사적 예수』, 726-741.

어를 그리스도께 전이시킴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시했다.¹³⁾ 따라서 기독교론의 중심에 있는 예수의 칭호에 관한 연구는 신구약의 전승사를 잇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약성경에서 기독교론적 칭호로 나타나는 ἀρχηγός가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LXX에 여러 차례 나타나는 ἀρχηγός는 히브리어 שׂרָא, רַשׁ, אֲשִׁי, קִצִּין 등을 번역할 때 사용되지 만, ¹⁴⁾ 주로 ‘שרָא’¹⁵⁾의 대응 번역어이다. 히브리어 ‘שרָא’는 ‘머리’를 의미하는 셈족의 관용적 표현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첫 번째, 높은 자리”라는 뜻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의미로 파생되어 사용된다.¹⁶⁾ 이런 용례에 따라 LXX는 ἀρχηγός를 ‘어른/족장’¹⁷⁾, ‘통치자/지도자/(군대) 지휘관’¹⁸⁾, ‘근본/원천/시초’¹⁹⁾로 자주 번역된다. 요약하면 구약성경에서의 ἀρχηγός는 주로 ‘정치적·군사적 지도자’를 말하며 전용된 의미로 ‘근원(자)/창시자’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²⁰⁾ 즉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ἀρχηγός는 항상 집단을 다스리고 이끄는 사람에 대한 칭호이지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아닐뿐더러 메시아에 대한 칭호도 아니다.

쿰란문서에서는 모임의 지도자가 구약성경에서처럼 집단을 이끈다는 의미에서 אֲשִׁי의 칭호를 받는다.²¹⁾ 당연히 이 אֲשִׁי는 LXX에서의 ἀρχηγός이다. 쿰란 공동체의 지도자는 종말론적 맥락에서 예루살렘의 제의를 회복시

13) W. Bousset, *Kyrios Christos*, 121-123; 게르트 타이센, 아네트 메르츠, 『역사적 예수』, 788-793; 또한 G. 프리드리히, 『예수의 죽음』, 박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218.

14) G. Dellling, “ἀρχηγός”, *ThWNT I*, 486.

15) 예를 들어 출 6:14; 민 10:4; 13:3; 25:4; 신 33:21; 삿 9:44; 대상 5:24; 12:21; 미 1:13 등.

16) 빌헬름 게제니우스, “שרָא”,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랍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739-740; BDB, 8829.

17) 예를 들어 『개역개정』 출 6: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Καὶ οὗτοι ἀρχηγοὶ οἴκων πατριῶν αὐτῶν) …”; 대상 5:24, “그들의 족장은(καὶ οὗτοι ἀρχηγοὶ οἴκου πατριῶν αὐτῶν) …”

18) 예를 들어 『개역개정』 민 10:4, “... 지휘관들(οἱ ἄρχοντες, ἀρχηγοὶ Ἰσραηλ) ...” 이 구절에서 ἀρχηγός에 대한 다른 현대 역본 NAS, NIV, NRS는 ‘leader’로, KJV는 ‘prince’로, EIN은 ‘군지휘관’의 의미를 담은 ‘Befehlshaber’로 번역한다; 『개역개정』 대상 12:21,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ἀρχηγοὶ χιλιάδων εἰσὶν) ...” 여기에서 다른 현대 역본 KJV, NAS는 ‘군지휘관’을 의미하는 ‘captain’으로, NIV는 일반적인 백성들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leader’로 번역한다.

19) 예를 들어 『개역개정』 미 1:13, “... 죄의 근본(ἀρχηγὸς ἀμαρτίαςοι) ...”; 또한 『공동』 마카1 9:16, “...흉악한 음모의 주동자들(τῶν ἀρχηγῶν τῆς κακίας) ...”

20) 스콧(J. Julius Scott)의 LXX와 세속의 문헌에서 ἀρχηγός를 (1) path-breaker(pioneer), (2) source/founder, (3) leader-ruler로 번역한다고 정리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보라. “ARCHEGOS in the salvation history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 *JET* 29/1 (1986), 47-54, 47-48; 또한 다음을 참고하라. G. Dellling, “ἀρχηγός”, *ThWNT I*, 485-486.

21) 참조, 1QSb 20; 1QM5.1; CD 7.20 rec A; 4Qplzl0.22.

켜야 하는 임무를 갖는다. ἀρχηγός가 인도자, 안내자의 모티프로 사용되는 유대교의 문헌들도 있다.²²⁾ 에티오피아 에녹서와 에스드라 4서에서는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한다.²³⁾ 심지어 바룩의 시리아 묵시록에서는 토라, 노모스, 율법이 바로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한다.²⁴⁾ 여기에서 인도하는 것의 의미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과 연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구약성경을 변증하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 of Alexandria)의 경우를 보면 그에게 ἀρχηγός가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가 ἀρχηγός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주로 구약성경의 용례에 따른 ‘조상’이나 ‘선조’를 말한다.²⁵⁾

이처럼 ἀρχηγός를 번역하고 사용하는 스펙트럼은 너무나 넓고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는 과연 어떤 의미와 기능을 담아서 ἀρχηγός를 예수에 대한 칭호로 사용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4. 신약성경에 나타난 ἀρχηγός

신약성경이 헬라 사상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칭호의 근저에 헬라의 영웅 헤라클레스(Ηρακλῆς)가 있다는 주장은 가장 흔히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²⁶⁾ 헤라클레스는 신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 보상으로 죽지 않았는데 초기 기독교회는 이것을 예수에게 투영했다는 것이다.²⁷⁾ 더구나 헤라클레스가 제의를 통해 신으로 숭배되듯이 예수의 경우 역시 초기 기독교가 신앙고백 안에서 헤라클레스의 칭호인

22) ἀρχηγός와 관련된 이 문헌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P. Müller, *Christos Archegos*, (Frankfurt: Peter Lang, 1973), 172-192.

23) 참조, EtiopHen 49:4; 69:27; 4Es 7:38.

24) 참조, Syr Ap Bar 85:1-3; 77:13-16.

25) 참조, Philo, *Migr Abr*, 170-175.

26) H. M. Zilling, *Jesus als Held*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11), 28-30, 145-150; A. Eppinger, *Hercules in der Spätantike: Die Rolle des Heros im Spannungsfeld zwischen Heiden und Christentum* (Wiesbaden: Herrassowits Verlag, 2015), 256-322; W. Grundmann, *Das Problem des hellenistischen Christentums innerhalb der Jerusalem Ur-gemeinde*, ZNW 38 (1939), 45-73, 특히 45.

27) 로마 제정 후기 가장 인기 있는 숭배 제의는 디오니시스, 헤라클레스, 아티스 등이며 이들은 신이나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고하라. 최혜영, “로마 황제 숭배와 기독교”, 『서양고대사연구』 19 (2006), 87-115, 특히 96-99.

ἀρχηγός와 그 동의어인 ἀρχηγέτης를 역사적 예수에게 부여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²⁸⁾

이 주장은 한편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존칭 ἀρχηγός가 헤라클레스로부터 유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²⁹⁾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칭호는 구약성경(LXX)에서 사용되던 칭호가 예수께 전이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신약의 교회가 태동한 토양이고 LXX는 초기 기독교의 경전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독교가 예수께 부여한 칭호인 ἀρχηγός가 구약의 전통과 얼마나 유사하며 또 그 차별점과 특이점은 무엇인지 그 용례를 신약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4.1. 사도행전에서의 ἀρχηγός

사도행전에서 ἀρχηγός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된다. 사도행전 서문에 나타난 선교적 프로그램(행 1:8)은 누가가 이미 종말론적 긴장의 완화를 감지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그의 이중 저술 또는 연속 저술인 누가-행전은 급속한 종말론의 약화를 구원사(Heilsgeschichte)로 대치하며 기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⁰⁾ 말하자면 교회의 역사는 구원사의 마지막 단계인 부활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다는 역사적 서술 방식에 의한 묘사이다.³¹⁾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ἀρχηγός(3:15; 5:31)는 사도행전의 선교적 프로그램이 보여 주는 지역 구분 중에서 첫 번째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술할 때 나타나는 기독교적 칭호이다. 형식 면에서

28) C. S. Keener, *Acts*, vol. 2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1097; G. 프리드리히, 『예수의 죽음』, 208; 또한 Menge-Gütling, “ἀρχηγός”, *Griechische-deutsches und deutsch-griechisches Hand- und Schulwörterbuch*, 10. Aufl. (Berlin-Schöneberg: Langenscheidtsche Verlagsbuchhandlung, 1913), 110; 또 다른 설명 방식에 관하여는 B. J. Whitfield, *Joshua Traditions and the Argument of Hebrews 3 and 4*, BZNW 194 (Berlin: Walter de Gruyter, 2013).

29) 반론 W. Grundmann, *Das Problem des hellenistischen Christentums innerhalb der Jerusalemer Urgemeinde*, 65-71.

30) 한스 콘첼만, 안드레아스 린데만, 『신약성서신학』, 박두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258; H. Conzelmann and A. Lindemann,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UTB (Tübingen: Mohr Siebeck, 2004), 356-357.

31) 참조, 페르디나트 한, 『신약성서신학 I』, 김문경, 김희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623; E. 헨헨, 『사도행전(I)』, 국제성서주석, 이선희, 박경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99.

사도행전은 설교 또는 연설이 내용의 1/3에 이른다. 이중 우리가 다루려는 ἀρχηγός를 포함한 문맥은 누가가 구성하여 전승한 총 24편의 설교에서 8개를 차지하고 있는 베드로의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설교 속에 있다. 누가는 이 설교의 대부분을 전승과 편집으로 구성했고 일부는 문체모방 기법도 활용한다. 사도행전에는 특히 2:14-36; 3:12-26; 4:9-12; 5:29-32; 20:18-35에 LXX의 문체(Septuagintism)가 보이는데 우리가 조명하려는 ἀρχηγός의 문맥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³²⁾

4.1.1. 베드로의 세 번째 전도 설교에서

베드로의 세 번째 전도 설교(행 3:11-26)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병자의 치유 사건이 계기가 되어 도입된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는 17절 분위기를 전환하는 불변화사 ‘vūv’과 칭중을 향한 부름 “형제들아”(ἀδελφοί)로 단락이 양분된다. ἀρχηγός를 포함하고 있는 앞 단락에서 베드로는 병자를 치유한 것이 자신의 능력과 경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12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고쳐 주신 것이라는 이유를 말하면서 치유와 생명의 근거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설명하며 기독교적 진술을 한다(16절).

이때 베드로가 사용하는 ἀρχηγός는 소유격에 의해서 확장되며 ‘ἀρχηγὸν τῆς ζωῆς’로 그 의미가 구체화되는데(15절), 이것이 바로 예수를 부르는 호칭 ‘생명의 ἀρχηγός’가 된다. 이 호칭은 유대인들이 ‘생명의 ἀρχηγός’를 죽였다는 바로 위의 구절(14절), 그리고 그것과 대칭되며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구절(15하반절)에 의해서 죽음-생명의 대칭 구조가 부각되는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은 다시 반복적으로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ἐπὶ τῇ πίστει τοῦ ὀνόματος αὐτοῦ)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부연한다. 즉 치유의 근원에는 생명이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생명의 ἀρχηγός’라는 말은 그 속격과 함께 ‘생명의 근원/원천(자)’라는 의미와 잘 부합한다.³³⁾

그러나 만일 ‘ἀρχηγός’와 결합된 이 소유격을 ‘방향과 목적의 소유격’(Genitiv des Zweckes und der Richtung)으로 본다면,³⁴⁾ 이 경우 ἀρχηγός는

32) 우도 슈넬레, 『신약정경개론』, 김문경, 문병구, 임진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3), 485-486; 페르디나트 한, 『신약성서신학 I』, 619; E. 헨헨, 『사도행전(I)』, 47, 히에로니무스의 견해 인용;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C. S. Keener, *Acts*, 1096-1099, 1218-1220.

33) E. 헨헨, 『사도행전(I)』, 166, 326.

34)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인도자”로 해석할 수 있다.³⁵⁾ 그리고 이 방향의 소유격 때문에 인도한다는 의미가 강조된다면 ‘ἀρχηγός’를 ‘인도자’라고 해야 한다.³⁶⁾ 사실 베드로는 이런 관점에서 ‘ἀρχηγός’가 나타나지 않는 설교의 나머지 하반절에서 모세를 인용하며 논증한다. 이때 베드로는 ‘선지자’(προφήτης)라는 존칭을 사용한다. 모세 역시 LXX에서 ἀρχηγός로 불린 자이며, 생명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자이다.

4.1.2. 베드로의 다섯 번째 전도 설교에서

베드로의 다섯 번째 전도 설교(행 5:29-32)는 그의 세 번째 설교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병자의 치유라는 기적이 발단이 었다면, 그의 다섯 번째 설교 역시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 이후 전개된다. 대중 앞에서 설교가 금지된 베드로와 사도들은 감옥 문이 기적으로 열린 후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체포되어 공의회(συνέδριον) 앞에 선다(27절). 베드로의 다섯 번째 설교는 바로 공의회가 소집한 청문회에서 대체사장이 던진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시작된다(29절).

여기서 비록 베드로의 설교가 형식적으로 변론 격의 연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설교이다(30-32절).³⁷⁾ 이 중 ἀρχηγός를 포함하고 있는 31절은 누가 신학의 핵심적 요약이라는 찬사를 받는다.³⁸⁾ 이곳에서 사용된 ἀρχηγός는 사도행전 3:15에서처럼 속격으로 확장되어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가 ‘ἀρχηγός και σωτήρ’가 되었다는 표현 속에 첨가된 σωτήρ를 통해서 나름 그 의미와 의도를 엿볼 수 있다.³⁹⁾ 하지만 이 두 기독교적 칭호를 연결하는 και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불변화사 και는 흔히 접속사로(kopulative) 사용되거나 부사로(adverial)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접속사일 경우 등가의 개념을 나열한 것이지만, 부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강조와 설명의 기능이 부가된다.⁴⁰⁾ 즉 σωτήρ는 ἀρχηγός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된다.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166, 또한 그 용례 요 5:29의 ‘εις ἀνάστασιν ζωῆς’, 마카2 7:14의 ‘ἀνάστασις εἰς ζωὴν’ 더 나아가 롬 5:18의 ‘εις δικαίωσιν ζωῆς’과 그 밖의 사례를 참고하라; E. 헨헨, 『사도행전(I)』, 326, 특히 각주 10; C. K.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ICC (London: T&T Clakrk, 1994), 198

35) C. K.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198; 하워드 마샬, 『사도행전』, 왕인성 역 (서울: CLC, 2016), 148.

36) E. 헨헨, 『사도행전(I)』, 326, 특히 각주 10.

37) Ibid., 339.

38) C. K.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290.

39) ‘σωτήρ’의 번역은 『개역개정』의 ‘구주’보다는 ‘구원자’가 더 적절하다.

40)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mentlichen Griechisch*, §44;

σωτήρ는 사실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 세속의 용례와 강한 연결점이 있다. 전통적으로 σωτήρ는 헬라 세계에서 신을 지칭하거나 그 신의 대리자로 여겨지는 통치자를 일컬을 때 자주 사용되며 황제 숭배의 용어이다.⁴¹⁾ 그러나 σωτήρ는 동시에 LXX의 용어이기도 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지만, 간혹 하나님의 구원을 대리하는 야훼의 종인 메시아를 연상시키는 구절들에서도 나타난다.⁴²⁾ 아마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σωτήρ, 즉 ‘구원자’로 불렀을 것이다.⁴³⁾ 하지만 초기 기독교의 예수에 대한 호칭 σωτήρ는 로마 황제를 칭했던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는”(5:31상반) 메시아적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σωτήρ 옆에는 κύριος가 나열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아 죽인⁴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 … 오른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행 5:30-31)는 이미 사도행전의 앞에서 초기 기독교의 선교적 설교와 강하게 공명하기 때문이다.⁴⁵⁾ 이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KJV, NAS, NIV 등이 κύριος와 같은 의미이지만 실제로 원문에서는 κύριος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Prince’로, 『개역개정』이 ‘임금’으로 번역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κύριος가 아니고 ἀρχηγός인가?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세속에서 σωτήρ는 정치적 통치자가 주는 구원에 방점이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이 σωτήρ에 이미 예수께 드러져 익숙한 κύριος가 결합한다면 이것은 황제 숭배의 공식 용어와 동일한 것이다.⁴⁶⁾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된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적 칭호인 ἀρχηγός는 사도행전 3:15와 같이 예수가 회개(μετάνοια)와 죄 사함(ἄφεσις ἁμαρτιῶ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σωτήρ와의 결합에서 오는 선입감과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완곡어법으로도 알맞다고 볼 수 있다.

하성수, 강지수 편저, 『그리스어 문법』 (왜관: 분도출판사, 2005), 741-746.

41) W. Foerster, “σωτήρ”, G. Friedrich, hrsg. *ThWNT*, VII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Theologischer Verlag, 1964), 1004-1012.

42) 참조, 수 9:9; 사 49:6. 또한 W. Foerster, σωτήρ, *ThWNT*, 1013; 김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서술어인가?”, 『성경원문연구』 41 (2017), 160-178, 특히 169-170.

43) C. K.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290; G. 프리드리히, 『예수의 죽음』, 210.

44) 참조, 신 21:23. 십자가형을 의미한다.

45) 행 2:36하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κύριον και χριστόν)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46) S. R. F. Price, “Gods and Emperors: The Greek Language of the Roman Imperial Cult”, *JHS* 104 (1984), 79-95; 또한 최혜영, “로마 황제 숭배와 기독교”, 87-115, 특히 102-106.

4.2. 히브리서에서의 ἀρχηγός

히브리서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발생한 무기력과 피로감이 놓여 있다.⁴⁷⁾ 심지어 박해와 배교의 위기감이 고조된다.⁴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다. 당연한 귀결로 그는 참된 믿음을 정의하고 그러한 믿음 예로의 동참을 촉구한다.⁴⁹⁾ 이때 신앙의 모범으로 예수가 제시된다. 왜냐하면 예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며(12:2) 믿음의 길을 ‘앞서가신 분’(πρόδρομος)이기 때문이다(6:20). 그만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의 고난과 희생이 강조된다.

또한 히브리서에서 인상적인 것은 그 문학적 형식에 관한 것이다.⁵⁰⁾ 비록 히브리서가 바울편지의 종결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13:22, 23-25) 저자는 설교를 의미하는 ‘권면의 말’(λόγος τῆς παρακλήσεως)이라는 전문용어를 중요하게 사용한다(13:22).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권면의 말’이라는 자기표현과 일치하게 기독교적 진술과 권면을 반복적으로 교차 사용하며 히브리서를 구성한다.⁵¹⁾ 이 구조 속에서 히브리서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ἀρχηγός는 낮아지고 높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독교적 진술이 들어 있는 2:5-18의 중간에⁵²⁾ 그리고 다시 구원사 속에서 믿음을 증명한 증인들의 목록을 기술한 이후에 이제 ‘바로 당신’이 그 후속 주자라는 신앙의 권면을 담은 12:1-29의 앞부분에 나타난다.⁵³⁾

47) 참조, 히 6:1-6; 10:23-25; 12:3. 또한 H. Conzelmann und A. Lindemann,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401; 우도 쉬넬레, 『신약정경개론』, 647.

48) 참조, 히 10:26-29, 32-39.

49)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ὑπόστασις)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ἔλεγχος)니”(히 11:1), 그리고 11:1-12:2를 참고하라.

50) E. Grässer, *An die Hebräer*, EKK XVII/1 (Braunschweig: Benziger/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 1990), 15-18.

51) Ibid., 28-30; H. Conzelmann und A. Lindemann,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XVII/1, 399-401; 우도 쉬넬레, 『신약정경개론』, 647-651; P. J. 악트마이어, J. B. 그린, M. M. 톰슨, 『새로운 신약성서개론』, 소기천, 윤철원, 이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568-570; 또한 배종열, “히브리서의 구조” 『개신논집』 20 (2020), 36-65.

52) E. Grässer, *An die Hebräer*, 111-156; P. Pokorný and U. Heckel,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UTB 2798 (Tübingen: Mohr Siebeck, 2007), 674; 우도 쉬넬레, 『신약정경개론』, 568.

53) E. Grässer, *An die Hebräer*, 225-342; P. Pokorný, U. Heckel,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674; 우도 쉬넬레, 『신약정경개론』, 568.

4.2.1. 기독교론적 진술 속에서

기독교론적 진술과 권면이 교차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히브리서의 첫 번째 기독교론적 진술은 서문이 끝나자마자 시작된다(1:5-14). 그런데 이 기독교론적 진술은 ἀρχηγός를 포함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독교론적 진술의 문맥인 2:5-13과 그 형식과 내용이 병행한다. 첫 번째 기독교론적 진술의 도입이 구약성경 시편을 인용하며 천사와 비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기독교론적 진술 역시 시편을 인용하며 천사와의 비교로 도입된다. 이 두 기독교론적 진술은 모두 구원(σωτηρία)이라는 주제가 그 핵심이다.⁵⁴⁾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ἀρχηγός가 나타나는 2:10-13은 그 뒤에 이어지는 2:14-18에서 부연하며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며 동시에 예수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끼치는가에 대한 해석학적 열쇠가 된다.⁵⁵⁾ 따라서 히브리서 2:10하반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칭호인 ‘ἀρχηγός σωτηρίας’는 이런 신학적 진술 속에서 살펴야 한다.

히브리서 2:10하반에 있는 ἀρχηγός 역시 사도행전 3:15하반과 마찬가지로 소유격에 의해서 확장되며 그 의미가 구체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ἀρχηγός인 예수는 ‘ἀρχηγός σωτηρίας’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다른 점은 이 ‘ἀρχηγός σωτηρίας’를 다시 앞뒤에서 수식어가 직접 꾸민다는 것이다: ἀγαγόντα + τὸν ἀρχηγὸν τῆς σωτηρίας + αὐτῶν. 여기에서 남성 단수 목적격 아오리스트 분사 ‘ἀγαγόντα’⁵⁶⁾의 주어가 10절에 명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앞 9절에서 ‘예수’라고 이미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ἀγαγόντα’의 목적어와 ‘ἀρχηγός σωτηρίας’를 뒤에서 꾸미는 남성 복수 소유격인 ‘αὐτῶν’이 지칭하는 대상은 ‘πολλοὺς υἱοὺς’로 일치한다. 즉 예수는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일을 했던 그들의(αὐτῶν) ‘구원의 ἀρχηγός’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ἀρχηγός는 ἀγαγόντα의 원형이며 ἀρχηγός와 어근이 같은 ἄγω와의 관계 속에서 “인도자, 안내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 ἀρχηγός를 관계대명사절 “δι’ ὃν τὰ πάντα καὶ δι’ οὗ τὰ πάντα” (2:10상반)에 초점을 맞추면 “창시자, 근원자”로 볼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54) 천사와 비교하며 전개한 첫 번째 기독교론적 진술의 결론인 “... 구원(σωτηρία)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히 1:14)와 두 번째 기독교론적 진술의 중간에 “...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σωτηρία)의 창시자를 ...”(히 2:10)을 비교하라.

55) E. Grässer, *An die Hebräer*, 122.

56) ἀγαγόντα의 원형 ‘ἄγω’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 G. Liddell and R. Scott, “ἄγω”, *A Greek-English Lexicon*, 9th ed. (revised suppl.) (Oxford: Clarendon, 1996), 17-18; 또한 W. Bauer, “ἄγω”,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 Aufl.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8), 27-28.

이 구절은 로마서 11:23의 전치사 말놀이에서처럼 창조의 주체자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⁵⁷⁾ 특히 거스리(D. Guthrie)가 이런 주장을 한다.⁵⁸⁾ 이와 같은 기조에서 ‘author’로 번역한 성경이 NAS, NIV, RKJV 등이며,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의 ‘창시자’도 그런 경향으로 볼 수 있다.⁵⁹⁾ 하지만 이 ἀρχηγός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히브리서의 저술 의도에 맞게 고난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특히 히브리서 2:9에 나온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예수’라는 이름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2:10하반)를 주목해야 한다.⁶⁰⁾

4.2.2. 신앙적 권면 속에서

히브리서의 종결 부분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전술(前述)한 11장을 기준으로 그것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두 번의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다(10:32-39, 12:1-29).⁶¹⁾ 첫 번째 권면은 핍박과 박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증인들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여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권면이다. 우리가 분석하려는 ἀρχηγός는 이 두 번째 권면의 서두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주하신 예수의 신앙적 모범(exemplum fidei)을 설명하는 12:1-3에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ἀρχηγός는 사도행전 3:15상반, 히브리서 2:10하반처럼 소유격으로 확장된 형태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르다. πίστις의 소유격이 ἀρχηγός뿐만 아니라 τελειωτής까지 이중으로 수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된 ἀρχηγός는 τελειωτής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신약성경에는 신앙의 권면을 운동경기 ‘경주’(ἀγών)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⁶²⁾ 히브리서 12:1-3 역시 ‘경주’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묘사한다.⁶³⁾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가장 많이 요청되는 ‘인내’(ύπομονή)가

57)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Röm 6-11)*, EKK VI/2 (Braunschweig: Benziger/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 1980), 272-274.

58) D. 거스리, 『히브리서』 (서울: CLC, 2015), 129-131.

59) 사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ἀρχηγός를 ‘주’로 번역했다. 다음을 비교하라. 공인역 『신약전서』(1906) “...그 **구원의 주장**으로 하여금 고난으로써 온전케 하심이니”, 『신약전서』(1938) “...더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1956])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60) 다음을 참고하라. A. L. B. Peeler, *You are my Son* (London; New York: T&T Clark, 2014) 80-83.

61) P. Pokorný and U. Heckel,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674; 우도 슈넬레, 『신약정경개론』, 568.

62) 예를 들면 고전 9:24; 빌 2:16; 3:13-14; 딤후 2:5 등이 그렇다.

63) 히 12:1-3 에는 당시의 육상경기를 연상시키는 많은 표현들이 있다. 경기장의 관중을 의미하는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περικείμενον ἡμῖν νέφος μαρτύρων), 경주에 참가하

이 세 구절을 강하게 응집하며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⁶⁴⁾ 이 세 구절 중에서 운동 경기라는 메타포가 믿음이라는 현실로 구체화되면서 역사적 예수의 전승을 요약하는 2절이 중심이 된다.⁶⁵⁾ 이때 경주에 참가하는 자가 모두 결승점을 바라보듯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자도 결승점, 목표를 바라봐야만 한다(2상반절). 그런데 그 목표가 바로 예수라는 지점에서 두 개의 기독교론적 호칭이 믿음(πίστις)의 꾸밈을 받으며 나타난다: ‘믿음의 ἀρχηγός και τελειωτής’

그렇다면 ἀρχηγός와 병행하며 나타난 τελειωτής는 어떤 의미이며, ἀρχηγός를 해명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τελειωτής는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을 가진 τελειώω 동사와 같은 어근으로부터 파생된 명사형으로 주요 의미는 “완성자, 종결자”이다.⁶⁶⁾ 히브리서 5:9상반에서도 그런 의미로 나타난다: “온전하게(τελειωθείς) 되셨은즉”. 여기서 ‘ἀρχηγός και τελειωτής’의 어근 ‘ἀρχη-τελ’은 서로 짝을 이루며 수사학적 측면에서 “기원과 완성”,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을 함의한다. 이런 이유에서 헬라 교부들은 τελειωτής를 주로 ‘완성자’로 해석한다.⁶⁷⁾ 이 경우 ἀρχηγός는 보통 τελειωτής, 즉 ‘완성자’의 짝인 ‘창시자’로 번역한다. 이런 맥락에서 τελειωτής’를 ‘perfecter’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ESV, NAS, NIV, NRS 등이다.

그러나 τελειωτής뿐만 아니라 ἀρχηγός를 해석할 때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먼저 본문에 천착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서 12:1-3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경주’(ἀγών)라는 메타포로 감싸여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μαρτύρων)들은(1상반절) 경기장 메타포와 연결할 때 잘 이해가 된다. 그 증인들이란 경주에서의 완주를 격려하는 관중의 다름이 아니다. 또한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τρέχωμεν)”(2하반절)라고 경주의 상황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더구나 이 τρέχωμεν은 우리말 번역과 달리 청유형(adhortative)으로

여 함께 달리자는 권유를 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τρέχωμεν τὸν προκειμένον ἡμῖν ἀγῶνα), 경주의 최종 목표, 결승점에 대한 “바라보자”(ἀφορῶντες),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μὴ κάμητε ταῖς ψυχαῖς ὑμῶν ἐκλούμενοι).

64) 12:1의 “인내로써”(δι’ ὑπομονῆς), 12:2의 “참으사”(ὑπέμεινεν), 12:3의 “참으신”(ὑπομεμενηκότα).

65) 오토 미헬, 『히브리서』, 국제성서주석, 강원돈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587.

66) 참고. H. G. Liddell and R. Scott, “τελειώω”, *A Greek-English Lexicon*, 9th ed. (revised suppl.) (Oxford: Clarendon, 1996), 1770; W. Bauer, “τελειωτής”, *Wörterbuch zu den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6. Aufl.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8), 1602-1603.

67) 불가타(Vulgata)도 ‘cōsummātor’(완성자)로 번역한다. 다음을 참고하라. 윌리엄 L. 레인, 『히브리서』, WBC 47하,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7), 368-369; 오토 미헬, 『히브리서』, 598.

경주에 함께 참여하자는 권유이며 도전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된 ἀρχηγός와 τελειωτής는 일차적으로 경기를 시작하시고 완주한 사람을 표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⁸⁾ 따라서 ‘경주’의 메타포에서 신앙의 모범(exemplum fidei)으로 제시된 예수는(2상반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고 그 목표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주하시고 경주를 마치신 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ἀρχηγός는 기본적으로 인내로써 믿음의 길을 ‘완주하신 분’(τελειωτής)이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해야 한다.⁶⁹⁾ 그래서 ἀρχηγός는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앞서가신 분이기⁷⁰⁾ 때문에 ‘창시자’라기보다는 ‘인도자’ 또는 ‘안내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⁷¹⁾

5. 나가는 말

초기 기독교의 선교적 케리그마 속에 들어 있는 예수에 대한 칭호 ἀρχηγός는 신비로운 단어이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ראש, שר, נשיא, קצין 등이 의미하는 “머리, 첫 번째, 높은 자리, 우두머리, 지도자, 어른/족장, 통치자, 지도자, (군대) 지휘관, 근본/원천/시초”라는 다양한 개념을 ἀρχηγός 하나로 수렴(收斂)했고, 초기 기독교에서 이것을 수용하여 예수에 대한 칭호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렇게 초기 기독교가 ἀρχηγός 하나로 수렴한 예수에 대한 칭호는 다시 현대의 성경에서 그 의미가 이산(離散)된다. 마치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다양한 의미처럼 현대의 성경들도 예수께 사용된 칭호인 이 ἀρχηγός를 “주, 임금, 왕자, 창시자, 근원자, 지도자, 대장, 선구자” 등으로 각기 달리 번역한다.

그러나 신약성경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ἀρχηγός는 이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현대의 번역에서도 수렴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ἀρχηγός를 사용하는 전승의 문맥에 공통점이 있고 모두 역사적 예수와 일관된 연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행 2:13; 5:30; 히 2:9; 12:2). 이런 관점에서 ἀρχηγός는 예수께 드린 가장 주요한 호칭인 κύριος와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κύριος가 예수의 지위와 사역에 대한 비교적 폭넓은 일반적

68) 히 5:9상반의 “은전하게(τελειωθείς) 되셨은즉”의 의미가 “완성했다, 이루었다”라기보다는 내용상 “도달했다”로 보기도 한다. 다음을 보라. 오토 미헬, 『히브리서』, 594.

69) E. Grässer, *An die Hebräer*, 238.

70) 참조, 히 6:20상반 “그리로 앞서가신(πρόδρομος) 예수께서”.

71) 오토 미헬, 『히브리서』, 597.

칭호라면, ἀρχηγός는 그의 사역, 특히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기능적 칭호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히브리서가 ἀρχηγός를 사용할 때 LXX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은 구약성경 내러티브의 중심 구조이기도 하다.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ἀρχηγός는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는 인도자의 표상이 강하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고난을 통과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신 예수가 ἀρχηγός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이처럼 ἀρχηγός는 모두 구원론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한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음을 넘어 부활로 인도하는 ἀρχηγός라는 확신은 그에게 희망을 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를 견뎌 내는 힘과 용기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바로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케리그마에 들어 있는 ἀρχηγός의 의미이다. ἀρχηγός를 이렇게 해석할 때 만일 우리가 ἀρχηγός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번역을 시도한다면 아래와 같이 새로운 번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인도자(ἀρχηγόν)를 죽였도다”(행 3:15상반)

“인도자(ἀρχηγόν)와 구원자로 삼으셨느니라”(행 5:31하반)

“그들의 구원의 인도자(ἀρχηγόν)를 …”(히 2:10하반)

“믿음의 인도자(ἀρχηγόν)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히 12:2상반)

<주제어>(Keywords)

ἀρχηγός, 기독교론적 칭호, 초기 기독교의 케리그마, 베드로의 전도 설교, 히브리서의 권면.

ἀρχηγός, Christological title, Kerygma in early Christianity, Peter's missionary speech, exhortation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참고문헌>(References)

- 『신약전서』, 경성: 경성성서공회(영국성서공회 경성지부), 1906.
- 『성경개역』, 경성: 조선경성성서공회, 1938.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거쓰리, D., 『히브리서』, 서울: CLC, 2015.
- 게제니우스,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김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서술어인가?”, 「성경원문연구」 41 (2017), 160-178.
- 레인, 윌리엄 L., 『히브리서』, WBC 47하,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7.
- 마샬, 하워드, 『사도행전』, 왕인성 역, 서울: CLC, 2016.
- 미헬, 오토, 『히브리서』, 국제성서주석, 강원돈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배종열, “히브리서의 구조”, 「개신논집」 20 (2020), 36-65.
- 쉬넬레, 우도, 『신약정경개론』, 김문경, 문병구, 임진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3.
- 악트마이어, P. J., 그린, J. B., 톰슨, M. M., 『새로운 신약성서개론』, 소기천, 윤철원, 이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이상일, “신약기독론의 이중언어적 기원”, 「신약연구」 15 (2018), 206-233.
- 최혜영, “로마 황제 숭배와 기독교”, 「서양고대사연구」 19 (2006), 87-115.
- 콘첼만, 한스, 린데만, 안드레아스, 『신약성서신학』, 박두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타이센, 게르트, 메르츠, 아네트 메르츠, 『역사적 예수』, 손성현 역, 서울: 다산글방, 2001.
- 프리드리히, G., 『예수의 죽음』, 박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하성수, 강지수 편저, 『그리스어 문법』, 왜관: 분도출판사, 2005.
- 한, 페르디난트, 『신약성서신학 I』, 김문경, 김희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허타도, 래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박규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 헨헨, E., 『사도행전(I)』, 국제성서주석, 이선희, 박경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Barrett, C. K.,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ICC, London: T&T Clark, 1994.
- Bauer, W., “ἄγω”,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 Aufl.,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8, 27-28.
- Blass, F., Debrunner, A. and Rehkopf, 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 Bousset, W., *Kyrios Christos*, John E. Steely, trans.,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3.
- Conzelmann, H. and Lindemann, A.,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UTB,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Cullmann, O., *Die Christologie des Neuen Testaments*, 5. Auf., Tübingen: J. C. B. Mohr, 1957.
- Delling, G., “ἀρχηγός”, G. Kittel and G. Friedrich, hrsg.,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vol. I, Stuttgart; Berlin; Köln: Kohlhammer, 1990, 485-488.
- Eppinger, A., *Hercules in der Spätantike: Die Rolle des Heros im Spannungsfeld zwischen Heiden und Christentum*, Wiesbaden: Herrassowitz Verlag, 2015.
- Foerster, W., “σωτήρ”, G. Friedrich, hrsg.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vol. VII,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Theologischer Verlag, 1964, 1004-1012.
- Frisk, H., *Griechisches etymologisches Wörterbuch*, vol I.,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Winter, 1960.
- Grässer, E., *An die Hebräer*, EKK XVII/1, Braunschweig: Benziger/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 1990.
- Grundmann, W., *Das Problem des hellenistischen Christentums innerhalb der Jerusalemer Urgemeinde*, ZNW 38 (1939), 45-73.
- Hahn, F., *Christologische Hoheitstitel – Ihre Geschichte im frühen Christentum*,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64.
- Keener, Craig S., *Acts*, vol. 2,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 Liddell, H. G., and Scott, R., “ἄγω”, *A Greek-English Lexicon*, 9th ed. (revised suppl.), Oxford: Clarendon, 1996, 17-18.
- Menge-Gütling, “ἀρχηγός”, *Griechische-deutsches und deutsch-griechisches Hand- und Schulwörterbuch*, 10. Aufl., Berlin-Schöneberg: Langenscheidtsche Verlagsbuchhandlung, 1913, 110.
- Müller, P., *Christos Archegos*, Frankfurt: Peter Lang, 1973.
- Peeler, A. L. B., *You are my Son*, London; New York: T&T Clark, 2014.
- Pokorný, P. and Heckel, U.,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UTB 2798,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Price, S. R. F., “Gods and Emperors: The Greek Language of the Roman Imperial Cult”, *JHS* 104 (1984), 79-95.
- Whitfield, B. J., *Joshua Traditions and the Argument of Hebrews 3 and 4*. BZNW

194; Berlin: Walter de Gruyter, 2013.

Wilckens, U., *Der Brief an die Römer (Röm 6-11)*, EKK VI/2. Braunschweig:
Benziger/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 1980.

Zilling, H. M., *Jesus als Held*,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11.

<Abstrac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the Title ἀρχηγός for Jesus

Young-in Kim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ἀρχηγός, the oldest Christological title of early Christianity. ἀρχηγός is a title for Jesus in the missionary proclamation of early Christianity. However, this title has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other titles for Jesus. Moreover, there is a problem that its translation has no consistency in modern translations of the Bible. This also means that modern Bible translations do not give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ἀρχηγός. Interestingly, the word ἀρχηγός was used for translating the Hebrew words ראש, שר, גשיא, קצין in the Old Testament into Greek for the Septuagint incorporated wide range of meanings such as head, the first, leader, elder, chieftain, ruler, (army) commander, source, and beginning. And early Christianity accepted this tradition as a title for Jesus. However, modern Bible translations fails to find a single concept corresponding to this ἀρχηγός, and again pours out various concepts about ἀρχηγός, which only shows insufficient and imperfect research on ἀρχηγός. As already shown in the Septuagint, the use of ἀρχηγός in Acts and Hebrews exemplifies the possibility of converging multiple concepts into a single concept in modern Bible translations. This is because there is a commonality in the context of tradition where ἀρχηγός is used, and that they are all consistently connected to the historical title of Jesus (Act 2:13; 5:30; Heb 2:9; 12:2). From this point of view, ἀρχηγός can be seen as a special functional title related to his ministry, especially to that of leading to life and salvation. In detail, ἀρχηγός is a symbol of a leader who leads to salvation and life in the context of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it is an exemplum fidei of passing through hardships and reaching the destination. Therefore, the conviction that Jesus is ἀρχηγός, who leads beyond death to resurrection, not only gives all Christians who put their hope in him the strength and courage to endure persecution, but also strengthens the belief that he can lead them to salvation and life. When we interpret in this manner, a consistent

translation of ἀρχηγός could be ‘the leader’.